

2019. 3. 20. 제 25회 아산서평 모임 발표문

김용민 저 『정의와 행복을 위한 키케로의 철학』

프롤로그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김용민입니다. 제가 『정의와 행복을 위한 키케로의 철학』이라는 줄자로 정치학회 학술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세종도서에도 선정되는 명예도 얻었습니다. 330여 쪽에 달하는 책의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하다가, 이미 책에 많은 내용이 담긴 만큼,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책을 쓰게 된 동기, 책의 주요 내용, 키케로의 철학적 공헌, 그리고 제 책이 갖은 의미를 중심으로 간단히 발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발표 후에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책을 쓰게 된 동기

키케로에 대한 관심은 플라톤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했다. 시카고 대학의 유학시절에 플라톤 철학을 배울 때는 플라톤의 세계만이 내 머리를 가득 채웠었다. 그의 철학을 배우고 이해하기에 급급했었다. 그의 철학은 당시 내가 박사과정에서 배우고 이해한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전승해 내려온 것으로 알았었다. 그러나 10여 년 전, 플라톤 철학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해되고 평가받았는지에 관해 의문이 생겼다. 플라톤이 죽은 후에 그의 철학이 겪은 여정이 궁금해진 것이다. 과연 그의 철학은 당대 및 후대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까? 그의 철학은 우선 아카데미학파의 철학자들에게 계승되었지만, 내가 예상했던 바와 다르게, 이들의 영향력은 점차 쇠퇴일로로 겪었다.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과 더불어 시작된 헬레니즘시대(기원전 323-31)에 들어서서 아카데미학파는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철학을 계승한 소요학파는 점점 그 영향력을 잃어 비주류학파로 자리매김 하였지만, 새롭게 탄생한 철학학파인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며 지배적인 주류학파로 자리매김 하였다. 근 삼백년간 지속된 헬레니즘시대에 아카데미학파, 소요학파, 에피쿠로스학파, 스토아학파는 헬레니즘철학체계를 구성하는 세 분야인 논리학, 자연학, 윤리학에 관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헬레니즘 철학자들의 저술은 대부분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자신의 수많은 작품을 통해 헬레니즘 철학을 후대에 전하고 있다. 키케로의 작품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헬레니즘철학에 관한 중요한 전거를 갖지 못 하게 되었을 것이다.

키케로는 플라톤을 최고의 그리스철학자로 생각했고,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다. 키케로가 플라톤을 얼마나 흠모했는지는 그가 플라톤의 대화편인 『국가』와 『법률』과 같은 이름을 가진 두 대화편을 썼다는 데 잘 나타나있다. 키케로의 두 대화편은 플라톤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플라톤의 정치철학을 로마인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부활시키려는 시도도 담고 있다. 이런 시도는 ‘로마인 플라톤’(The Roman Plato)으로서의 키케로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키케로의 로마적 관점은 헬레니즘철학체계에 따라 저술된 논리학, 자연학, 윤리학에 관련된 그의 작품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단지 헬레니즘철학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로마의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이들을 합리적인 자유시민으로 교육시킬 목적으로

작품을 저술했다.

나는 키케로 연구를 통해서 플라톤철학의 영향력과 위상에 관해 내가 제기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키케로의 눈을 통해 그가 로마의 철학자로서 이해했던 플라톤철학을 볼 수 있었고 헬레니즘철학을 볼 수 있었다. 처음에 그에 대한 관심을 플라톤에 대한 관심으로 출발했지만, 이러한 관심은 플라톤에 관한 책이 아니라 키케로의 철학에 관한 책으로 귀결되었다. 키케로의 철학은 전통적인 그리스철학을 모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독창성의 면에서 어느 정도의 한계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그리스철학의 영향을 벗어나 로마의 전통인 실천성을 가미한 독립적인 철학을 의식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 독자성이 인정된다. 만일 키케로가 없었더라면 그리스철학에 버금가는 로마철학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책은 내가 지난 10여 년 간 키케로에 관해 쓴 논문 9편을 책의 체제에 맞게 재편집한 결과물이다. 각 논문들은 독립적으로 쓰여 졌지만, 이제 이 책에서 모여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다.

2. 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목차

프롤로그

서론: 키케로의 철학세계

1부 정치철학

1장 이상국가와 법률

2장 수사학과 정치

3장 이상적 정치가와 정치교육

2부 헬레니즘 철학체계의 토대: 논리학과 자연학

4장 논리학

5장 자연학

3부 헬레니즘 철학체계의 정점: 윤리학

6장 에피쿠로스 윤리학 비판

7장 스토아 윤리학과 소요학과 윤리학 비판

8장 행복의 철학과 영혼치료학으로서 철학

에필로그

키케로는 자신의 철학세계를 『예언에 관하여』 2권의 ‘서론’에서 밝힌다. 여기서 키케로는 헬레니즘 철학에 관련된 주요 작품인 『아카데미의 회의주의』 『최고선과 최고악』 『투스쿨룸의 대화』 『신들의 본성』, 정치철학에 관련된 작품인 『국가에 관하여』, 수사학에 관련된 3부작인 『웅변가에 관하여』, 『브루투스』, 『웅변가』 그리고 친구 아티쿠스에게 바친 『노년에 관하여』 등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법률에 관하여』는 여기 서론에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예언에 관하여』 이후에 저술된 작품이 『우정에 관하여』와 『의무에 관하여』인데, 이 두 작품이 더해져서 키케로의 철학 세계는 완성된다. 키케로의 작품은 초기에는 수사학과 정치철학에 집중되어 있고, 후기에는 헬레니즘 철학 체계에 집중되어 있다.

이 책에서 필자는 키케로의 철학세계를 크게 정치철학적 세계(1부)와 헬레니즘 철학세계(2-3부)로 나누고, 또 헬레니즘 철학 세계를 헬레니즘 철학 체계의 토대인 논리학과 윤리학을 다루는 부분(2부)과 철학 체계의 정점인 윤리학을 다루는 부분(3부)으로 나누어 그의 철학세계를 해석하고 분석했다. 첫째, 1부 “정치철학”에서는 정치철학적 세계를 구성하는 작품에 『국가에 관하여』 『법률에 관하여』는 물론, 『옹변가에 관하여』와 『의무에 관하여』를 포함해 키케로의 정치철학을 살펴보았다. 끝의 두 작품을 정치철학에 포함시킨 이유는 『옹변가에 관하여』에는 옹변술은 물론, 정치, 법률, 역사, 철학 등에 조예가 깊은 이상적 옹변가는 바로 이상적인 정치가라는 주장이 담겨 있고, 『의무에 관하여』에서는 시민과 정치엘리트들이 배워야 할 정치교육과 아울러 이들이 준수해야 할 실천윤리학이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만약에 『국가에 관하여』와 『법률에 관하여』가 완전한 형태로 우리에게 전수되었더라면, 우리는 키케로의 정치철학 세계를 『옹변가에 관하여』와 『의무에 관하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좀 더 완전하게 구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네 권의 대화편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키케로의 정치철학을 조망할 수 있게 한 것은 이 책의 학문적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2부 “헬레니즘 철학 체계의 토대: 논리학과 자연학”에서는 헬레니즘 철학 체계의 정점에 위치한 윤리학을 위한 예비 학문인 논리학과 자연학을 각각 『아카데미의 회의주의』와 『신들의 본성』을 중심으로 파악해 보았다. 『아카데미의 회의주의』의 분석을 통해 아카데미학파, 소요학파, 스토아학파의 철학 체계를 논리학, 자연학, 윤리학의 차원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고, 제논으로부터 시작된 스토아학파의 인식론이 무엇인지 살펴본 후 이것이 지닌 문제가 무엇인지를 신아카데미 회의주의의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분석·비판했다. 또한 『신들의 본성』의 분석을 통해 에피쿠로스신학과 스토아신학의 내용을 소개하고, 두 신학 이론에 대한 신아카데미학파인 코타의 비판을 다루었다. 특히 신의 존재, 신의 본성, 신의 섭리, 신의 인간에 대한 배려에 관한 스토아학파의 신학적 도그마에 대한 코타의 논쟁은 로마시민에게 종교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불러 일으키려는 목적을 지닌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셋째, 3부 “헬레니즘 철학 체계의 정점: 윤리학”에서는 『최고선과 최고악』과 『투스쿨룸의 대화』를 중심으로 에피쿠로스학파, 스토아학파, 소요학파의 윤리학을 대상으로 한 키케로의 비판과 소개 및 철학은 영혼치료의 철학, 행복의 철학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을 다루었다. 『최고선과 최고악』에 나오는 세 종류의 대화를 다시 둘로 구분해, 첫 번째 대화를 중심으로 6장에서 에피쿠로스의 윤리학을 다루었고, 두 번째 대화와 세 번째 대화를 하나로 묶어 7장에서 스토아학파의 윤리학과 소요학파의 윤리학을 함께 다루었다. 키케로는 윤리학은 인간의 행복에 실천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헬레니즘철학의 전통을 따라, 최고선인 행복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혼의 병’에 대한 실천적이고 경험적인 치료방법을 『투스쿨룸에서의 대화』에서 제시하였는데, 철학의 새로운 위상으로서 ‘행복의 철학’으로서의 위상과 ‘영혼 치료학으로서의 철학’의 위상을 마지막 8장에서 부각했다.

필자는 키케로에 있어 정치철학의 세계와 헬레니즘철학의 세계는 상호보완적이며 서로 결합되어 하나의 철학세계를 이룬다고 본다. 그는 자신의 철학세계에서 이상적 정치체제, 이상적 법률, 이상적 옹변가, 이상적 정치가, 이상적 정치교육을 꿈꾼 한편, 논리학, 자연학, 신학, 윤리학 등에 조예가 깊은 합리적 이성을 지닌 이상적 시민이 생성되길 바랐다. 그러나 그가 생각했던 이상의 기준은 플라톤과 같이 현실에서 실현가능성이 낮은 그런 유토피아적 이상이 아니라, 로마 공화국에서 실현된 적이 있었거나 실현가능성이 높았던 그런 실천적 이상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로마적인 실천적 이상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교육을 강조한다.

내가 국가에 제공할 수 있는 봉사로서 청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보다 위대하고 훌륭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의 청년들이 현재의 도덕성 해이로 인해 아주 타락해져 버렸다는 사실을 특별히 고려한다면 그들을 통제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최대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예언에 관하여』, II. 4-5).

키케로가 정치철학의 세계를 마무리 짓는 『의무에 관하여』에서 정치교육을 논의하고, 신학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는 『신의 본성에 관하여』에서 로마 청년을 도덕적 타락에서 구하기 위해서 종교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리학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는 『투스쿨룸에서의 대화』에서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영혼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영혼의 의사로 만드는 철학교육을 중요시 하고 있는 것은 키케로가 자신의 철학에서 교육의 역할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3. 키케로의 철학적 공헌

키케로의 철학적 업적에 대한 후대 사람의 평가는 상당히 상반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부침을 거듭해 아직도 진행 중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작품은 중세 후기 유럽에서 대학이 생긴 이후 많이 읽히기 시작했으며,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인문주의적 교육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 키케로의 영향력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 시민과 노동자가 정치세력화되어 급진적 성격을 띠게 되자, 보수적이며 귀족주의적 성격을 지녔던 키케로의 사상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역사적 뒷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키케로의 철학에 대해 가장 악평을 한 대표적인 학자가 몸젠(Theodore Mommsen)이다. 몸젠은 키케로의 사상을 “비철학적이고 비역사적인” 것으로 폄하하고 있으며, 그를 단지 “미사여구를 잘 만드는 사람”(phrase-maker) 또는 “기록을 잘 하는 사람”(journalist)으로 경멸하고 있다. 몽테뉴의 키케로에 대한 평가는 사뭇 신랄한데, 그는 키케로의 글 쓰는 방법은 상당히 지루하며, 키케로는 핵심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고 있을 뿐이라고 비난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에라스무스는 키케로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키케로의 작품인 『호르텐시우스』를 읽고서 정신적 변화를 겪으면서 신에 대한 사랑과 기도로 향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에라스무스는 어릴 때는 키케로의 책보다 세네카의 책을 좋아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키케로의 책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키케로가 자신의 영혼에 영감을 주었고 자신을 훌륭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키케로가 고대 철학의 발전에 기여한 학문적 공로는 그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라는 “현실적 기준”에 따라 평가될 수도 있지만, 만일 그의 업적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가상적 기준”에 따라 평가될 수도 있다. 필자는 후자의 가상적 기준을 통해서 볼 때 키케로의 철학적 위상이 보다 분명해진다고 생각한다. 우선 현실적 기준에 따라서 평가해본다면, 첫째, 키케로의 작품들은 자신보다 3-4세기에 걸쳐 앞서서 살았던 그리스 철학자들의 이론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 이들 이론에 대한 키케로의 설명과 해석은 그가 활동했던 시대인 기원전 1세기 초의 보편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우리는 키케로를 통해 특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보다 가깝게 근접해 갈 수 있다. 둘째, 키케로는 그의 철학 작품인 『아카데미의 회의주의에 관하여』 『최고선과 최고악에 관하여』 『투스쿨룸에서 대화』 『신의

본성에 관하여』 등에서 신아카데미학파, 구아카데미학파, 소요학파, 에피쿠로스학파, 스토아학파 등의 철학적 입장을 대화의 형식을 빌려 상세하게 드러내고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는데, 이 대화편들은 고전 그리스 철학이나 헬레니즘 철학 연구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상적 기준에 따라서 평가해 본다면, 바로 위에서 거론된 키케로의 헬레니즘 철학체계에 관한 작품들이 만약 없었더라면 우리는 헬레니즘 철학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를 상실하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의 현존하는 작품들이 지닌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말 이후, 근 1세기 이상 침체기를 겪은 키케로의 철학은 1980년대 이후 부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부활의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스트라우스를 중심으로 전개된 미국에서의 고정 정치철학의 부활이다. 물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학문적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이러한 관심과 더불어 키케로의 철학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둘째, 헬레니즘 철학은 1980년대에 들어서서 새롭게 학문적 관심을 받기 시작했으며, 이에 관한 많은 연구 업적이 생성되었는데, 헬레니즘 철학의 부흥과 함께 키케로도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셋째, 정치철학 분야에서 1990년대 진행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논쟁이 키케로의 공화주의사상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키케로 공화주의의 핵심은 법치이다. 그는 자의적인 권력에 의해 지배받지 않을 자유를 법이 보장해야 할 최고의 가치로 보았으며, 자유란 법의 지배를 통하여 확립된다고 주장했다. 스키너와 비롤리 같은 신로마공화주의자들은 공화주의의 기원을 키케로에게서 찾고 있다. 필자는 아직도 이 세 가지 요인은 키케로에 대한 연구를 추동하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4. 책이 가지는 의미

키케로가 ‘로마인 플라톤’이라고 평가받고 있다는 점은 그가 그리스철학과 로마철학을 절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의 절충주의는 그의 철학세계가 지닐 수 있는 약점과 강점을 동시에 보여준다. 만일 그가 ‘정신없는 절충주의’(mindless eclecticism)를 노정하고 있다면 그는 몸제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그가 로마의 전통을 살리는 입장에서 의식적으로 절충주의를 택하고 있다면, 그의 절충주의적 철학은 그리스철학과는 독립적인 철학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 키케로는 독립적인 철학에 대한 염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더욱이 철학의 연구에 있어 그리스 저술가들과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은 로마인의 명성과 영예를 높이는 일이 될 것이며, 만약에 내 현재의 저술계획이 완성된다면 나는 확실하게 이런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예언에 관하여』, II. 5).”

키케로의 염원대로 후대사람이 그의 철학세계를 독창적이라고 평가를 해온 것은 아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부침을 계속해 왔다. 니고르스키는 최근의 시기를 ‘키케로에 대한 보다 큰 존경의 시대’(a period of greater respect for Cicero)로 말하면서, 키케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의 의미를 신중하게 해석하려는 방법론에 의존해서 키케로의 독창성을 찾아내려는 연구경향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¹⁾ 필자는 다양한 철학학파가 유행하던 헬레니즘 시대에 “나 홀로 자유롭다”고 외치고 있는 키케로의 자유로움 속에 그의 독창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키케로에 대한 연구를 통하

1) Walter Nicgorski, ed., *Cicero's Practical Philosophy*(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12).

여 그의 철학이 지닌 독창성을 찾아내고 부각시키려고 노력했다. 이런 필자의 노력이 성공을 거두어 학계에서 키케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길 기대해 본다.

키케로의 정치철학이나 철학, 수사학, 교육학에 대한 국내 학자의 연구는 지난 10년간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아직도 단행본 수준의 연구 업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 분야가 일천하며 더 연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일반 독자란 연구 초심자들을 위해서 키케로 철학을 폭넓게 조망할 수 있는 안내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책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서양에서는 키케로 철학이 부활하고 있고, 그 부활을 이끈 세 가지 요인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문의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 한국 학계에서도 키케로 연구가 좀 더 빨리 진작되고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 책이 국내의 키케로 연구가 이미 수준 높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서양의 학문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한다.

<<참고>>

[1] 헬레니즘 철학 체계

헬레니즘시대에 들어서서 아카데미학파, 소요학파,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학파의 네 학파가 주요 학파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이제 철학은 체계를 갖추게 되어, 논리학(Logic), 자연학(Physics), 윤리학(Ethics)의 세 분야로 구성되게 되었다. 그리스고전 철학시대에 속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학문을 이론학, 실천학, 창작학의 세 분야로 나누었는데, 이와 같은 분류는 헬레니즘 시대의 분류와는 다를 수 있다. 헬레니즘 철학을 세 분야로 나눈 사람은 크세노크라테스(Xenocrates)로 알려져 있다. 이 세 분야는 흔히 논리학, 자연학, 윤리학의 순서로 정렬되는데, 이러한 순서는 철학은 논리학에서 출발하여 자연학을 거쳐 윤리학에서 정점에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 분야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흔히 다음과 같은 비유나 유추가 사용된다. 철학을 과수원에 비유할 경우에 나무는 자연학을, 열매는 윤리학을, 울타리는 논리학을 상징한다. 철학을 달걀에 비유할 경우에 윤리학은 노른자, 자연학은 흰자, 논리학은 껍질로 비유되며, 철학을 동물에 비유할 경우에 자연학은 살과 피, 논리학은 뼈, 윤리학은 영혼에 비유된다.

이 세 분야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각각 추구하고 있는데, 논리학 (혹은 인식론)은 “어떻게 세계를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자연학은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그리고 윤리학은 “존재하는 세계 속에서 행복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논리학은 “진리의 기준”(criterion of truth)을 결정하는 것을, 자연학은 우주의 본질 및 그 법칙을 확인하는 것을, 그리고 윤리학은 우주의 법칙을 인간의 실천적인 삶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영혼 돌봄’의 철학과 정치

『투스쿨룸에서의 대화』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두 가지 경향이 있다. 그 한 가지는 이 대화편 3-4권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철학이 지닌 영혼치료학적 성격을 강조하는 연구 경향이다. 그레이버의 연구는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²⁾ 다른 하나는 대화편의 각 권에 기술된

2) Margaret Graver, *Cicero on The Emotions*(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Stoicism and Emotion*(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7).

서언을 깊게 분석하여, 키케로가 그리스의 전통철학에 대신하여 새로운 로마 철학과 ‘로마교육’의 필요성을 주창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연구경향이다. 길덴하드는 이러한 연구경향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어떤 연구경향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키케로의 저술 의도는 다르게 해석된다. 또한 『투스쿨룸에서의 대화』에 대한 평가도 극과 극을 오가고 있는데, ‘아주 보기 드문 진품 명작’(a genuine rarity), ‘경악과 낙담’의 대상, ‘명작이 아닌 작품’ 등의 아주 상반적인 평가가 존재한다.³⁾ 길덴하드는 새로운 ‘로마교육’의 형식과 내용이 제시되었다는 측면에서 이 대화편을 심원한 독창성을 지닌 작품으로, 또한 키케로의 작품 중에서 정점에 위치하며 분수령이 되는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길덴하드와 그레이버의 입장을 우리가 앞에서 쓴 용어를 사용하여 다시 정리해 본다면, 전자는 ‘철학적 교육’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후자는 ‘철학적 치료’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규정할 수 있다. 영혼의 교육이 영혼의 치료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면, 결국 『투스쿨룸에서의 대화』는 교육에 관한 작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우리는 헬레니즘 철학자들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보편적이고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키케로 역시 이러한 전통을 답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키케로를 포함한 헬레니즘철학자들이 원했던 교육은 플라톤이 『국가』에서 기획했던 정치제도의 혁신과 관련된 거대한 교육프로젝트 같은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공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제도적 변화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거대 교육프로젝트보다는, 사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개인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맞춤형 교육프로젝트를 추구했다. 그들은 정치를 개인의 욕망이나 신념에 맞춰 공동선을 제공하는 원천으로 변화시키기를 추구했다 기보다는, 정치에 직접적으로 의존하지 않고서도 개인이 사적 차원에서 행복해 질 수 있도록 개인이 지닌 욕망이나 신념을 새롭게 교육시킬 것을 추구했다.

키케로가 주장하는 맞춤형 교육이나 치료는 다른 헬레니즘학파의 처방에 비해서 개인적인 성격을 강하게 노정하고 있다. 현대 정치사회에서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the personal is political)”라는 것이 하나의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맞춤형 처방을 제시하는 키케로의 철학적 시도는 상당히 정치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너스바움의 정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키케로의 시도가 미래의 정치학에 있어서 가질 중요성을 잘 부각시키고 있다: “정치는 단순히 일상적인 재화와 직위를 분배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는 영혼 전체, 영혼이 지닌 사랑, 공포, 분노, 젠더 관계, 성적 욕망, 소유와 자식들과 가족들에 대한 태도에 관여한다.”⁴⁾ 너스바움의 주장대로 정치가 영혼의 미세한 양상에 관여해야 한다면, 다시 말해 앞으로 정치가 경제적 분배의 문제보다 철학적·심리적 교육과 치료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면, 우리는 키케로의 『투스쿨룸의 대화』에서부터 그 답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3) 길덴하드(Gildenhard)는 진품 명작으로, 말콤 스코필드(Malcolm Schofield)는 경악과 낙담의 대상으로, 괴를러(Woldemar Görler)는 명작이 아닌 작품으로 각각 평가하고 있다. 이 대화편에 대한 다양한 평가에 관해서는 Ingo Gildenhard, *Paideia Romana*(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1-3 참조.

4) Martha Nussbaum, *The Therapy of Desire*,(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504.